

# 삼채, 기억력 회복에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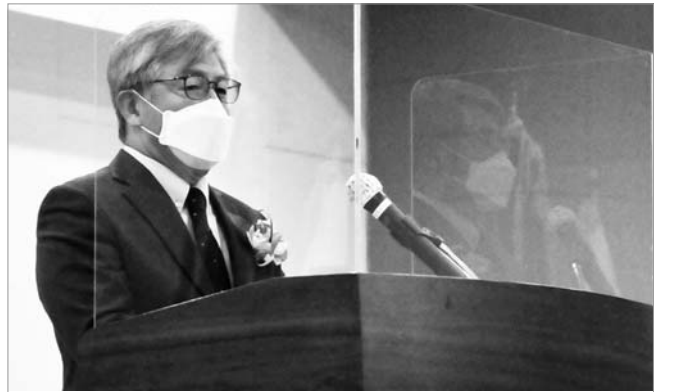
### 농진청, 동물실험 통해 인지능력 관련 행동·물질 조절 효과 밝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동물실험을 통해 삼채가 기억력 회복과 치매 관련 지표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삼채는 매운맛, 단맛, 쓴맛 등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 삼채(三菜)라고 불리며, 칼륨이 풍부한 치유식품이다. 이번 연구는 인지가 저하된 실험용 쥐에 삼채의 잎과 뿌리를 먹여 기억력 회복과 치매 관련 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인지가 저하된 실험용 쥐는 정상 쥐보다 공간지각 능력과 공간학습 능력이 6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나 삼채를 먹인 쥐는 먹지 않은 쥐보다 공

간지각 능력과 공간학습 능력이 51% 이상 개선됐다. 인지가 저하된 쥐에서 혈액, 간의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IL-1 $\beta$ , IL-6)과 물질(NO, COX-2, NF- $\kappa$ B)이 50% 이상 증가했으나 삼채를 먹인 쥐에게서는 먹지 않은 쥐보다 이들 지표가 22%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혈액과 뇌 조직의 인지는 관련 인자를 분석한 결과, 인지가 저하된 쥐에게서는 아세틸콜린과 합성 효소 활성이 줄었으나 삼채를 섭취한 쥐에게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38% 이상 회복됐다. 또한, 뿌리를 먹었을 때 삼채 잎보다 효과가 11% 이상 우수했다.

퇴행성 뇌 질환이 있는 실험용 쥐에서도 행동유형 관련 인자들을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퇴행성 뇌 질환 쥐에서는 공간지각, 단기 기억, 공간학습, 명시적 기억 능력이 일반 쥐보다 65% 이하 수준으로 줄었으나 삼채를 먹인 쥐는 먹지 않은 쥐보다 공간지각, 단기 기억, 공간학습 능력이 54% 이상 명시적 기억 능력은 20% 이상 개선됐다. 또한 삼채는 인지가 저하와 치매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A $\beta$ , Amyloid beta), 카스파제 3 (Casp-3), 뉴런 핵(NeN)과 콜린 아세틸트랜스퍼라제(ChAT)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채의 인지는 개선과 퇴행성 뇌 질환 개선 효과는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국제 학술지 Nutrients (IF 5.7)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산업체와 협력해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 등 실용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영과장은 "이번 연구로 삼채가 기억력 회복, 치매 관련 지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삼채의 활용도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제21대 유희철 병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12일 오후 원내 임상 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거행된 가운데 유희철 병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도민과 동행한 따뜻한 의료 100년'

### 신임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취임식

전북대학교병원 제21대 유희철 병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12일 오후 원내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거행됐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행사를 축소해 추진 및 축하영상 소개, 신임원장 임명직임을 위해 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식 진료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축전 및 축하영상 소개, 신임원장 임명직임을 위한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김동문 전북대총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정주 부산대병원장,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김승환 전북대병원장 등 대내외 관계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진안의료원 조백환 원장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제21대 병원장에 취임한 유희철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대표 병원장이라는 엄중한 책무에 걸맞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과 더불어 마음도 있지만 대내외

유관기관과 병원 가족의 든든한 지원과 협력이 있기에 소신껏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면서 "앞으로 선대 병원장님들이 추진해오던 장기사업들을 지속할 물론 구성원 모두의 다양성을 수용해 '도민과 동행한 따뜻한 의료 100년'을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중심의 경영철학에 중점을 두고 그간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과 질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그리고 IT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혁신을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한 경영실천 방안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제공으로 신뢰받는 최상급 병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첨단형 스마트병원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의 신속한 건립과 공공의료시설 유치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행복한 병원 만들기 등의 4대안을 중심으로 경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농공단지 성장·지역경제 발전 기여 공로 인정

###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도 농공단지 도약의 날 감사패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지난 12일 소노벨 변신에서 열린 '2021 전라북도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에서 농공단지의 창조 혁신 사업을 적극 지원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전북농공단지협의회(회장 최태호)가 주관한 '2021 전라북도 농공단지 도약의 날'은 농공단지의 미래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기업, 지원기관, 지자체 등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 실현을 꾀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유관기관 관계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관리자 등이 참석했으며 개회식 및 시상식, 노무관리 전담을 주제로 한 특강과 우수기업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조지훈 전장은 "농공단지는 지역 산업발전 및 농어촌지역의 소득 확대,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인 산업기반이다. 이를 잘 알기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했다"며 "그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다.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밀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라북도 농공단지 도약의 날 부대행사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제품홍보를 위한 전시회도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aT공사, 외식산업협회와 저탄소 식생활 실천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추진 중인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외식업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회장 윤용근)와 12일 서울 aT센터에서 저탄소 식생활과 건강한 외식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식문화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공동 전개 및 홍보 ▲국내외 외식정보 협력을 통한 건강한 외식문화 확산 등 국민건강과 지구환경 수호를 위한 ESG 가치 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공사는 지난 9월 선포식을 갖고 국민, 단체, 학교에 확산한데 이어 외식업체에서도 캠페인을 함께하게 되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외식업체 경영위기 극복과 안심식당 등 외식 관련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30일간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인 '2021 코리아 먹캣페스타'를 공동 주관하는 등 양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환경정화를 위한 줌깅 DAY 캠페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2일 ESG 경영 캠페인의 일환으로 '줌깅DAY' 행사를 실시했다. '줌깅'은 우리말 '줍다'와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일컫는 말로,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 본점과 도내 영업점, 수도권 및 대전지역의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 시작 전 이른 아침부터 '줍깅'에 참여해 본점과 각 영업점 인근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윤상 기자

친환경 ESG 캠페인 '줍깅DAY'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2일 ESG 경영 캠페인의 일환으로 '줍깅DAY' 행사를 실시했다. '줍깅'은 우리말 '줍다'와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일컫는 말로,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 본점과 도내 영업점, 수도권 및 대전지역의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 시작 전 이른 아침부터 '줍깅'에 참여해 본점과 각 영업점 인근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윤상 기자

# 15MW급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건설 추진

### SGC에너지, 한전과 협약 체결

SGC에너지(대표 이복영 박준영, 안찬규)가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플랜트 건설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을 추진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빅스포 2021)'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박준영 SGC에너지 대표와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해 양사의 기술과 사업화 로드맵을 간담회에 기여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SGC에너지가 기술 이전 받은 한전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습식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제거하고 설비 운전이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 세계 정상급 성능을 가진 기술이다. 액화된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99.99% 이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1만5,000시간을 초과하는 연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해 용량은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SGC에너지의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는 2023년 중반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 설비가 가동되면 연간 1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에 한걸음 앞장서게 된다. 추가로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와 액체탄소의 판매로 인한 추가 수익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박준영 대표는 "한전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SGC에너지의 독보적인 사업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기술을 확장시켜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ESG 경영을 선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SGC에너지는 (구)삼광글라스 및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 3사가 합병한 사업형 지주회사다. /군산=한경복 기자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해 용량은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SGC에너지의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는 2023년 중반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 설비가 가동되면 연간 1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에 한걸음 앞장서게 된다. 추가로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와 액체탄소의 판매로 인한 추가 수익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박준영 대표는 "한전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SGC에너지의 독보적인 사업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기술을 확장시켜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ESG 경영을 선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SGC에너지는 (구)삼광글라스 및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 3사가 합병한 사업형 지주회사다. /군산=한경복 기자

## 군산신역세권지구 마지막 단독주택 용지 공급

### LH, 점포겸용 11필지

LH 전북본부(본부장 김승철)는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1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필지별 면적은 250~265㎡이며, 입찰 기준가는 평균 229만~263만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한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다. 군산신역세권 지구는 군산신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총 6,904가구가 건설되며,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단지로 개발된다. 현재 인근에 조성 중인 디오시티와 함께 향후 동군산 거점 역할을 할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장항선 철도, 국도 2호선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다. 또 인근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영화관, 종합병원 등이 입지하고 있는

## 중기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 은파오투그란데레이크원·익산더반포레 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0조에 따라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예정은 '은파오투그란데레이크원'과 '익산더반포레'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각각 12세대와 11세대이다. /김윤상 기자

등 도심 배후시설도 양호하다. 여기에 일반상업용지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의 수의계약대상 토지가 전량 매각되는 등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이번 공급 시행으로 전여 물량 전부가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및 7월에 공급한 공동주택 용지도 각각 높은 경쟁률로 매각되는 등 군산신역세권에 대한 전망이 기대된다고 전북본부는 전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오는 17일 하루 동안 LH 청약센터에서 입찰 신청할 수 있다.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 이상을 청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대금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다. 건축 제한사항은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3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자제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전북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